‘내신 무력화’ 시도 대학 손보기?

2008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내신 반영비율이 30% 미만인 대학들에 대해 교육부가 내년초 행재정적 제재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4일 대교협이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실에서 199개 대학 정시 입시요강을 발표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행재정적 제재 카드 방침을 공개했다.

■ ‘내신비율 미달대학 제재’ 배경은

◇행재정적 제재 카드 왜 나왔나= 교육부 우형식 대학지원국장은 “내신 비율을 지킨 대학과 지키지 못한 대학은 차별화해야 하며 전형 결과를 분석한뒤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대학들의 입시 전형 결과를 최종 분석한뒤 내년 2월 제재 대상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제재 방침은 내신 비율 차등화로 ‘손해 볼’ 대학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정부의 ‘공교육 정상화’ 기조에 따라 내신 비율 30% 이상 권고안을 지킨 대학들 입장에선 그렇지 못한 대학들과 정부에 대해 ‘속은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제재 없이 내신 반영비율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2009학년도 이후에도 내신 갈등은 피하기 어렵다고 교육부는 보고 있다.

◇‘제재 방침’ 논란 계속되나= 교육부의 강도높은 제재 방침이 다시 불거지자 제재 방침을 수능이 임박한 이 시점에 꼭 발표해야 하는지, 교육부가 지난 7월 내신 갈등 국면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적 기조가 달라진 것이라고 해놓고 다시 정책 방향을 바꾼 것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6월 일부 사립대들의 ‘등급간 만점’ 처리안이 공개되면서 촉발된 내신 갈등은 교육부와 대학간의 공방속에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을 연출하다 7월초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대학 자율 부여’ 담화가 발표되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듯 했다.

교육부의 제재 방침이 내년초 전형 결과가 나온뒤 시행될 예정이라면 수능 등 입시 일정이 대체로 마무리된 뒤 발표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강희돈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사지원부장이 4일 오전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2008년도 정시모집 요강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능 두달 남기고 발표…2차 내신전쟁 우려

대학들 반발속 ‘로스쿨 연계되나’ 초긴장

◇대학 반발= 제재 대상으로 꼽히는 고려대와 서강대 등 내신 실질반영률 30% 미만인 주요 사립대들은 일관성없는 교육부 정책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며 제재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발표한 내신 실질반영비율을 그대로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대학은 정부의 행·재정적 제재가 대학이 사활을 걸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유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초긴장상태다.

교육부는 로스쿨과의 연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대입전형이 공교육 정상화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이 로스쿨 심사기준에 포함될 경우 로스쿨 연계가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지난 2월부터 北 테러지원국 해제 검토”

힐, 시드니서 송민순 장관에 ‘제네바 합의’ 설명

北 “연내 핵시설 무력화-테러지원국 삭제” 합의

미국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4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 해제문제와 관련, 미국이 2·13합의에 따라 지난 2월부터 내부적으로 검토작업을 진행해왔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특히 구체적인 해제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보다 분명한 미국의 입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힐 차관보는 이날 호주 시드니를 방문,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지난 1~2일 진행된 제네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힐 차관보는 북한측이 제네바 회의에서 연말까지 핵 프로그램 완전신고와 불능화 의지를 분명히 표시했다는 점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일을) 이행할 지에 대해 북측과 논의했다는 점도 송 장관에게 설명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3일 “조(북)미 쌍방은 연내에 우리의 현존 핵시설을 무력화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토의하고, 합의하였다”면서 “그에 따라 미국은 테러지원국명단에서 우리나라를 삭제하고 적성국무역법에 따르는 제재를 전면 해제하는 것과 같은 정치경제적 보상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시드니=연합뉴스

중국군 해커들, 美 펜타곤 뚫었다

6월 해킹…장관실 등 마비

중국 인민해방군이 지난 6월 미국 국방부 전산망을 해킹했으며 이로 인해 미 국방부는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 집무실로 연결되는 전산망을 차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4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전산망 해킹이 발생한 직후 일부 전산망을 1주일 넘게 차단하는 한편 내부 조사를 벌여 중국 인민해방군이 해킹의 ‘진원지’라는 것을 확인했다.

미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신문과 인터뷰에서 미 국방부가 전산망 공격의 ‘정확한’ 진원지를 꼭 집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중국 인민해방군과 미군은 서로 상대 전산망을 감시, 조사해 왔지만 지난 6월 인민해방군의 미 국방부 전산망 해킹은 중차대한 시기에 중국이 미 국방부 전산망을 와해시킬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려된다는 게 당국자들의 견해다. /연합뉴스

고령화에 노인 의료비 급증

노인 1인당 진료비

90년 이후 17년간 17배 늘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노인의료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 건강보험 진료실적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의 건강보험 월평균 진료비는 17만511원으로, 1990년의 1만 20원에 비해 17배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07년 연간 65세 이상 노인 한 사람당 진료비 지출액은 2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노인의 월평균 의료기관 방문일수도 1990년 0.78일(입원 0.1일, 외래 0.67일)에서 2007년 상반기에는 3.38일(입원 0.51일, 외래 2.86일)로 대폭 늘어났다.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65세 이상 노인은 1990년에는 196만 명(남자 76만 명, 여자 120만 명,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4.9%)에 그쳤으나 2007년 6월 말 현재에는 425만 명(남자 175만 명, 여자 250만 명)으로 2배 이상 증가해 건강보험 적용인구의 8.9%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 노인진료비의 비중은 1990년 8.0%에서 2007년 상반기 27.6%로 급격하게 늘었다.

2007년 상반기 65세 이상 노인의 거주지역별 월평균 진료비 지출액을 보면, 서울시 15만2천372원, 6대 광역시 16만3천637원, 그 외 도시지역 16만2천564원, 군지역 24만4천381원 등이었다.

또 거주지역별 월평균 입원 및 내원일수도 서울시 2.72일, 6대 광역시 3.32일, 중소도시 3.22일, 군지역 5.24일 등으로 군지역 거주 노인이 도시지역 거주 노인보다 월등히 높은 의료이용을 보였다. /연합뉴스

“전원 유서 써 놓고 출국”

김경자·김지나씨 회견

아프간 피랍상황 밝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무장세력에 납치됐다 가장 먼저 풀려났던 김경자(37), 김지나(32)씨는 4일 “아프간 선교활동을 떠나기 전 유서를 쓰고 출발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귀환한 19명과 함께 경기도 안양시 샘안양병원에 입원 치료중인 두 사람은 이날 오후 병원 지하1층 샘누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프간에서의 피랍 상황과 심경을 밝혔다.

이들은 “이번에 아프간으로 떠나기 전 팀원들이 유서를 써두고 갔다”며 “아프간으로 떠나기 직전 교회에 제출했으며 자율적으로 썼기 때문에 팀원 중 절반 이상이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유서를 쓰는 것은 아프간 출국을 앞두고 좀더 의미있는 삶을 살자는 뜻에서 교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쓴 것”이라며 “아프간 팀이 구성되고 난 뒤 작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유서를 쓰고 선교활동을 떠나느냐는 질문에는 “(유서를 쓰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에 대해 샘물교회 관계자는 “팀원 23명 중 팀장 배형규 목사를 제외한 9명이 유서를 써두고 갔으며 교회 사무실 배 목사의 개인 사물함에 보관했었다”고 설명했다.

아프간에서 23명의 선교단원이 납치된 뒤 교회측은 단원들의 유서 작성에 대해 “그런 일 없다”며 부인해왔다. /연합뉴스

부시, 세번째 이라크 ‘깜짝방문’

3일 이라크 안바르주 알-아사드 공군기지를 사전 예고없이 방문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병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P=연합뉴스

“美 올림픽선수단 숙소 한국에 둘 수도”

미국이 내년 베이징올림픽에 참가하는 자국 선수들의 숙소를 중국이 아닌 한국에 둘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일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미국이 자국 선수들을 중국 도시의 스모그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크 로게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오염 때문에 베이징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마라톤 같이 지구력을 요하는 경기들이 연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올림픽을 앞둔 중국의 공해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